

# 건설동향브리핑

## 제478호 (2014. 9. 22)

### ■ 경제 동향

- 7월 국내 건설 수주, 21.5% 증가

### ■ 정책 · 경영

- 중소 건설기업의 부문별 핵심 경영 활동 진단 요소
- 미국, 소득 공제 통한 자가 보유 지원 축소 논의

### ■ 정보 마당

- 2013년 세계 250대 건설기업의 매출 동향 분석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안전 사회’ 건설, 동력을 키울 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7월 국내 건설 수주, 21.5% 증가

- 공공 부문 : 기저 효과로 13.3% 증가, 민간 부문 : 상업용 건물 수주 증가로 24.2% 증가 -

### ■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 7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한 6조 8,950억원을 기록함.
  - 국내 건설 수주는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47.0% 증가해 매우 양호하였으나, 5월에는 5.8% 증가에 그쳐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였음.
  - 6월과 7월에는 각각 24.7%, 21.5% 증가하면서 다시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며, 7월 실적으로는 4년 내 최대치인 6조 8,950억원으로 금액 자체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 공공 부문 : 기저 효과 영향으로 13.3% 증가

-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한 1조 6,005억원을 기록, 지난 6월에 38.7%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함.
  - 다만, 2007년 이후 7월 수주가 지속적으로 2조원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수주액 자체는 예년보다 다소 낮은 실적으로, 기저 효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공 토목 수주의 경우, 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수주가 예년에 비해 부진했지만, 작년도 수주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9% 증가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6.2% 감소한 793억원을 기록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65.3% 증가한 4,818억원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2014년 7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3. 7월	5,675.3	1,412.3	787.9	624.4	333.0	291.4	4,263.0	351.2	3,911.8	2,701.9	1,209.9
2014. 7월	6,895.0	1,600.6	1,039.5	561.2	79.3	481.8	5,294.3	342.8	4,951.5	2,690.4	2,261.1
증감률	21.5	13.3	31.9	-10.1	-76.2	65.3	24.2	-2.4	26.6	-0.4	86.9
2013. 1~7월	37,244.0	11,050.9	7,449.3	3,601.6	1,316.2	2,285.4	26,193.1	4,849.6	21,343.5	12,428.2	8,915.4
2014. 1~7월	44,993.9	14,142.0	9,545.3	4,596.6	1,677.7	2,918.9	30,851.9	3,399.1	27,452.8	17,010.5	10,442.3
증감률	20.8	28.0	28.1	27.6	27.5	27.7	17.8	-29.9	28.6	36.9	17.1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 비주택 건축의 호조로 24.2% 증가

- 토목과 주택 수주가 부진했으나, 비주택 건축 수주가 호조를 보여 7월 실적으로는 8년 내 최대치인 5조 2,943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4.2% 증가함.
  - 토목 수주는 7월 실적으로 12년 내 최저치인 3,428억원을 기록해 2.4% 감소
  - 주택 수주는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부진으로 0.4% 감소한 2조 6,904억원을 기록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공장 및 상업용 건물 수주의 증가로 7월 실적으로는 통계가 작성된 1976년 이후 최대치인 2조 2,611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6.9% 급등함.

■ 건축 : 주택 제외하고 모두 양호, 토목 : 도로, 철도, 기계설치 등 증가

- 건축 수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주택 수주는 민간과 공공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해 부진했음.
  -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호텔과 대형 오피스 빌딩 등의 수주 증가로 7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1조 5,013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77.9% 증가함.
  - 한편, 공장 및 창고와 관공서 수주도 각각 115.8%, 48.3% 증가해 양호했음.
- 토목 공종의 경우,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기계설치 등이 증가함.
  - 도로 및 교량 수주와 기계설치의 경우, 수주액 자체는 예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각각 11.1%, 15.7% 증가함.
  - 철도 및 궤도 수주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 수주의 영향으로 7월 실적으로는 최근 4년 내 최대치인 3,554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77.4% 급등함.
  - 한편, 항만 및 공항, 토지조성, 발전 및 송전은 각각 18.5%, 31.6%, 44.3% 감소해 부진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4. 7월	2,769.7	1,501.3	666.0	429.6	146.1	265.3	355.4	118.5	102.0	43.8	269.9
증감률	-8.7	77.9	115.8	48.3	146.5	11.1	477.4	-18.5	-31.6	-44.3	15.7
2014.1~7월	18,688.2	7,217.7	2,535.8	2,288.2	1,319.5	4,040.6	2,276.5	490.9	1,296.5	1,673.3	1,626.9
증감률	36.0	50.5	12.3	-33.5	86.8	104.0	52.5	-24.0	12.0	0.1	-54.8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중소 건설기업의 부문별 핵심 경영 활동 진단 요소

- 핵심 진단 요소 및 내용을 중심으로 -

### ■ 중소기업의 핵심 경영 활동의 분류

-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은 크게 ① 사업 및 경영 관리의 통합 조정과 성과 관리 활동, ② 사업 및 경영 관리의 성과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역할, ③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업 및 경영 관리의 프로세스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분류에 따른 핵심 내용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경영 관리 및 성과’, ‘인력·조직 관리’, ‘수주·영업 관리’, 그리고 ‘공사 수행 역량’ 등 4개의 진단 영역화가 가능함.

### ■ 진단 영역별 핵심 경영 활동의 진단 내용

- ‘경영 관리 및 성과’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단해야 함.
  - 첫째, ‘경영 활동의 내·외부 기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기업의 연혁, 출자 구조 등 경영의 성숙도, 체감 경기, 주력 사업의 여건 등 외부의 경영 환경 등을 대상으로 함.
  - 둘째, ‘경영 목표 수립 및 관리’로서, 경영 비전 및 전략을 수립, 관리하고 있는지와 당해 연도의 양적, 질적 경영 목표를 수립, 경영 과정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진단해야 함.
  - 셋째, ‘최고 경영자(CEO)’의 항목으로, CEO 및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경영 목표 실천력, 건설업종 경영자로서의 경력 및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도 등이 주요 진단 요소임.
  - 넷째, ‘리스크 관리’로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영 관리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진단 대상임.
  - 다섯째, ‘경영 성과’로서, 재무적인 수익성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요 재무 성과 지표들을 포함하며, 주력 공종 사업 및 신규 사업 분야 발굴 성과 등을 포함해야 함.
- ‘인력·조직 관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단해야 함.
  - 첫째, ‘인적 자원 관리의 원칙’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과 공유하며 준수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 및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진단함.
  - 둘째, 구체적인 ‘인적 자원 관리 활동’으로, 교육 훈련 및 복리 후생, 적정 급여 수준

- 유지는 인사 제도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까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직 규범 및 구조’로, 의사 결정 및 통제 체계, 그리고 조직 운영의 제 규정 구비 정도, 조직 구조, 관리자의 선임 과정 및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진단 대상임.
  - 넷째, ‘조직 혁신 활동’으로, 업무의 표준화 및 정보화 정도, 경영 관행의 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여부 등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수주 · 영업 관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단해야 함.
    - 첫째, ‘수주 · 영업 전략’으로, 수주 영업 활동의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수주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등이 대상이 됨.
    - 둘째, ‘견적 역량’으로, 견적의 실제 성과뿐만 아니라 견적의 전문성과 견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견적 기술의 습득 노력 및 견적에 필요한 자료 관리 등을 진단해야 함.
    - 셋째, ‘영업 활동’으로, 주력 사업의 수요 및 업계 동향 등 수주 정보 수집 및 활용 정도, 그리고 주요 발주처 관리 및 수주 실패의 원인 분석 등도 중요한 진단 요소임.
    - 넷째, ‘수주 지원 활동’으로, 지속적인 수주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신용도 관리 및 이미지 개선 활동, 기업 간 전략적인 제휴 활동 등을 진단해야 함.
  - ‘공사 수행력’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단해야 함.
    - 첫째, ‘공사 계획’으로, 공사 관리 조직의 체계 및 책임자 명시는 물론, 전 공종, 부문 공사 순서 및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며, 외주 및 노무 계획, 자금 계획 및 실행 예산의 편성 등도 포함됨.
    - 둘째, ‘구매 조달’로, 적기 준공을 위한 가설재의 활용, 자재 및 장비의 적기 조달 및 효율적 관리, 그리고 하도급 업체의 선정 및 하도급 업체의 시공 관리 등이 포함됨.
    - 셋째, ‘기술 · 품질 관리’로, 단기 · 중기 · 장기 계획하의 시공 및 공사 관리 기술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활동, 그리고 품질 관리 조직 체계의 구축과 매뉴얼화 정도를 포함함.
    - 넷째, 세부 ‘공사 관리’ 활동으로,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한 적기 준공 유도 여부, 시공 계획의 준수 정도, 원가 관리 활동 등이 포함됨. 본사와 현장 간 원활한 연락 체계, 현장 업무 분장의 체계성, 안전 및 노무 등 관리 활동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진단의 영역 및 세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때 중소 건설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진단이 가능할 것임.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 미국, 소득 공제 통한 자가 보유 지원 축소 논의

- 미국 모기지 이자 등 소득 공제 광범위, 우리나라는 보유 단계 세제 지원 미미 -

### ■ 소득 공제 통해 자가 보유 적극 지원

- 미국은 국세인 소득세에서 부동산 관련 소득 공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모기지(Mortgage) 이자와 재산세 공제가 가장 대표적임.
  - 미국의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는 1913년부터 시작됨. 1986년 조세 개혁 법률(TRA86) 이전에는 모든 개인의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1986년 이후에는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주택 보유 비용을 소득세의 소득 공제 항목으로 인정하여 자가 보유를 지원하고 있음.
  - 100만 달러 이하의 모기지 대출에 대해 상환한 이자 전액이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됨.
  - 거주 주택과 추가적으로 두 번째 주택(Second Home)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 가능
  - 추가 대출인 소유자 지분 대출(Home Equity Loan)도 10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 가능
  - 지방정부에 납부한 부동산세와 재산세 전액도 소득 공제의 대상임.

### ■ 주택 소유자 다수가 수혜

- 중위 주택의 가격, 점보론(Jumbo Loan)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예외적인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택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함.
  - 미국 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2014년 2/4분기 미국의 기존 단독주택 중위 주택의 가격은 21만 2,400달러임.
  - 페니 메이(Fannie Mae, 연방저당공사증권)와 같은 정부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고액 대출을 점보론(Jumbo Loan)이라고 함. 2014년 현재, 미국 일반 지역의 점보론 기준은 41만 7,000달러임. 하와이, 알래스카, 괌 등 예외적인 지역에서는 62만 5,500달러 수준임.
  - 소득 공제가 가능한 대출의 기준이 100만 달러임을 고려하면, 중위 주택의 약 5배, 점보론의 약 2배 수준에 해당됨. 즉, 극히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소득 공제가 가능함.
-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소득 공제는 미국 중산층의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었으며, 자가 보유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해 옴.

- 미국의 모기지 소득 공제는 항목 공제의 방식으로 표준 공제에 비해 항목 공제가 많을 때, 절세의 방안으로 선택하게 됨.
- 중산층의 경우,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항목 공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소득세 절세 효과가 커 주택 보유시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함.

## ■ 미국, 재정 압박 등 소득 공제 축소 논란

- 최근 들어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 부문에 대한 소득 공제의 축소를 포함한 세제 개편 논의가 미국 내에서 진행 중에 있으나, 논란이 큰 상황임.
- 2011년 1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4조 달러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일명, 제로 플랜)’에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됨. 제로 플랜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주택 부문의 소득 공제 축소임. 세율 조정과 함께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한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100만 달러 이하인 현재의 공제 대상 모기지 한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소득 공제 금액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 중에 있음.
- 그러나, 제로 플랜의 모기지 소득 공제 조정 방안은 포퓰리즘(Populism) 논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오바마 정부의 세제 개편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가 강력해 계속 계류되고 있으며, 의회 승인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임.

## ■ 우리나라도 보유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 지원 수단으로서 세제의 역할은 호황기 때는 투자 수익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침체기인 최근에는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 기간의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주택 소득 공제는 주택 가액 대상과 소득 공제 금액의 제한이 존재하여 보유 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자가 지원을 실시해 온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 ※ 2014년 세제 개편을 통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15년 이상, 고정 금리, 비거치식일 때 연간 1,8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함. 국민은행의 2014년 7월 기준 전국의 중위 주택 가격은 2억 4,274만원이고, 서울은 4억 2,372만원 수준으로 수도권 다수의 주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우리나라의 재정적 어려움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가 보유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2013년 세계 250대 건설기업의 매출 동향 분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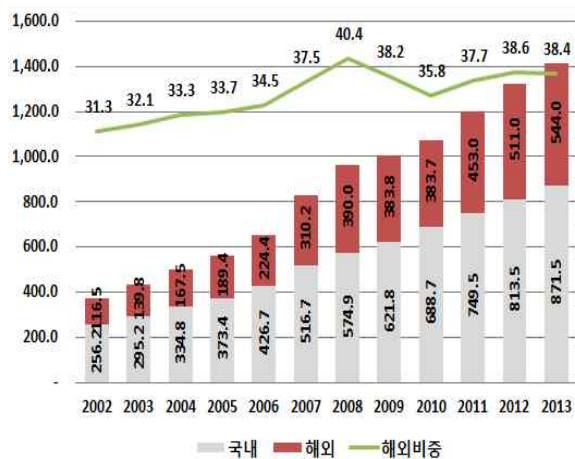
- 중동시장 부진, 북미와 유럽시장의 약진 -

## ■ 250대 세계 건설기업의 2013년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330억 달러 증가한 5,440억 달러

- 지난 8월 30일, 미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s)지의 발표에 따르면, 250대 세계 건설기업의 국내 및 해외를 포함한 2013년 글로벌 매출(국내+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조 4,155억 달러를 기록함.
  -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8,715억 달러를 기록해 글로벌 매출의 61.6%를 차지한 반면, 해외 매출의 비중은 38.4%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
  - 해외 매출의 성장률은 6.5%로 전년(12.8%) 대비 절반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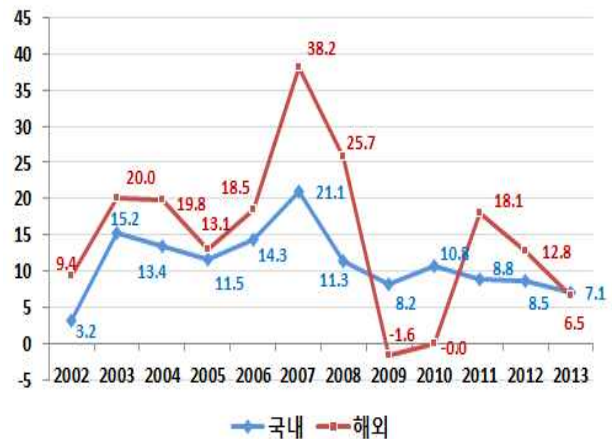
<글로벌 건설시장 매출 및 해외 비중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국내 및 해외 매출 성장률 추이>

(단위 : %)



## ■ 공종별 : 교통·석유화학·건축이 70% 점유, 지역별 : 중동 지역 매출 전년 대비 7.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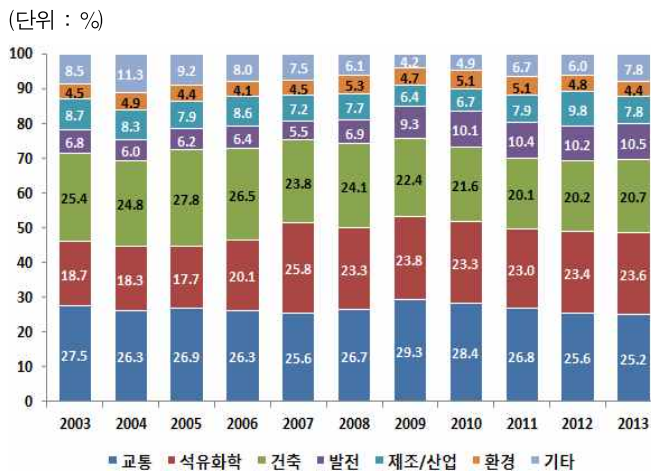
- 전체 해외 매출에서 교통, 석유화학, 건축 등 3대 공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가 유지됨.

1) 본고는 *ENR*지가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2013년 세계 250대 해외 건설기업 매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NR*지는 국내와 해외 매출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설 관련 각 부문의 세계 유수의 건설기업들을 소개하고, 지역 및 공종별 매출 규모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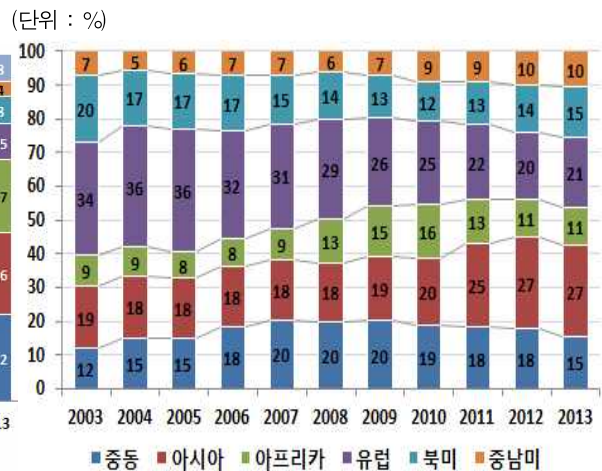


- 석유화학과 건축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84.5억 달러와 94.6억 달러가 증가한 반면, 제조(Manufacturing)/산업(Industrial)과 환경은 각각 76.3억 달러와 7.7억 달러 감소
-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7.7%가 감소한 841억 달러로, 전체 해외 매출에서의 비중도 전년 대비 3% 감소한 15%를 기록
  - 반면, 캐나다 시장은 에너지 부문의 투자 확대에 의해 전년 대비 24.4% 증가한 342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시장을 포함해 전체 해외 매출의 15%를 차지
  - 유럽(1,118억 달러)과 아시아(1,464억 달러)는 전년 대비 각각 9%와 5.7% 증가해 전체 해외 매출의 48%를 차지

<공종별 해외 매출 비중 추이>



<지역별 해외 매출 비중 추이>



■ 한국 건설기업 13개 사 포함, 총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424억 달러 기록

- 한국 건설기업은 시장 점유율 7.8%로 세계 6위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5위인 독일(8.6%)과의 격차는 전년 대비 확대됨.
  - 우리나라의 수주 집중 지역인 중동 지역에서는 점유율 25.8%(217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매출 1위를 차지하였지만, 점유율과 매출 규모 모두 전년 (29.2%, 267억 달러)보다 하락함. 아시아 지역에서 146억 달러, 아프리카 지역에서 3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10%와 4.9%의 점유율을 기록
  - 250대 순위에 포함된 국내 건설기업은 총 13개 사이며, 30위 이내에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5개 사가 포함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9. 16	서울시	• ‘용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용산 TF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용산 개발 사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진로 논의
	국토교통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논의
9. 18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제 부금 수납액 목표 설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2015년도 공제 부금 수납액 목표 설정의 적정성 검토
9. 23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담당관실 주최, ‘고용부 포럼/TF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고용 노동 정책 방향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 ‘안전한 사회 건강한 일터 만들기 정책 토론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건설 산업 분야 토론자로 참여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순회 간담회’ 개최

- 기간 : 2014. 9. 19(금)~9. 26(금)
- 지역 : 충북,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제주, 광주·전남
- 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회의실
-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한건설협회 · 건설공제조합

■ ‘건설산업의 빅데이터 미래 전략 세미나’ 개최

- 일시 : 2014. 9. 29(월) 13:00~16:40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제1주제 : 건설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진단과 빅데이터 시대 대응 방향  
(발제자 : 강상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빅데이터 이슈 및 도입 방법론  
(발제자 : 장동인 테라데이터 부사장)
- 제3주제 : 빅데이터 방법론 기반 연구 사례  
(발제자 : 한승우 인하대 교수)
- 제4주제 : 빅데이터 기반의 건설 안전 영상관제센터 구축 사례  
(발제자 : 황우진 한국 IBM 과장)

## ‘안전 사회’ 건설, 동력을 키울 때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래 최근 싱크홀 발생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건설과 관련된 대책으로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간투자를 선도하는 공공투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제정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은 20여 년 간 운영되며 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전국의 2만 9,000여 교량 중 「시특법」 관리 대상인 대형 교량은 30%가 조금 웃도는 9,600곳에 불과하다. 즉, 국내 교량의 70%는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회관 등의 사회 복지 시설과 농어촌 교량, 옹벽 등의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약 13만 곳도 관리의 사각 지대에 머물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약 20만 곳의 특정관리시설물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특법」에 의해 관리되는 대형 시설물을 제외한 약 33만 곳의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은 소형의 취약한 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취약 시설물의 건강성 회복은 화급한 과제이며, 이에 ‘중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소형 사회·생활 시설물의 전수 점검과 안전 실태 백서’의 발간을 제안한다.

정부는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공공 시설물의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지난 2010년에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시설의 내진율은 2013년 말 기준 약 22%에 그치고 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시설 10곳 중에 8곳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내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경로당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시설의 내진율은 공공 시설물 평균 내진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 시설의 내진율도 타 사회 기반 시설물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공공 건축물 중에서 학교 시설과 사회 복지 시설의 내진 보강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와 함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유지 관리+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융·복합 기술의 시설물 모니터링 분야는 정부의 안전 산업 육성 방안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안전과 ICT 융합 기술에의 투자는 향후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신흥 시장’으로의 성장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담합과 비리로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 사회의 건설을 통한 위기 극복이다. <건설경제, 2014. 8. 28>

이영환(연구위원 · yhlee@cerik.re.kr)